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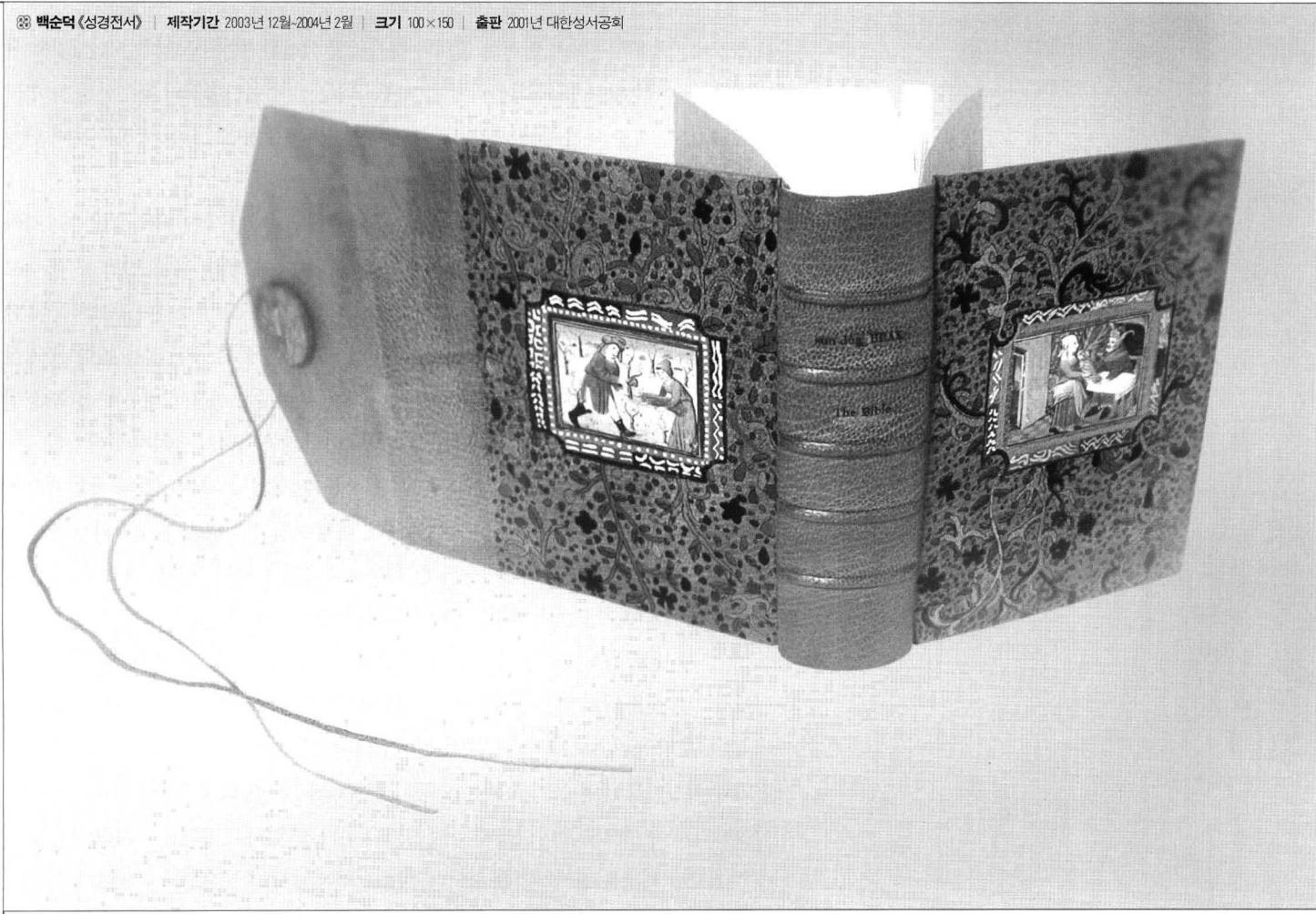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

〈출판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40) 씨에게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동시에 갖춘 책 7월의 예술제본은 그가 완성한  
《성경 전서》다.....

美

백순덕 《성경전서》 | 제작기간 2003년 12월-2004년 2월 | 크기 100×150 | 출판 2001년 대한성서공회



## 15 세 기 . 말 로 . 거 . 슬 러 . 올 . 라 . 가 . 담 . 은 . 성 . 경 . 의 .. 영 . 혼 ...

성서는 예술제본의 목적을 완성해 주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책이다. '좋은 책을 오랜 기간 아름답게 보존하기에 성서만큼 좋은 책이 있을까? 다만 제본가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성경은 종이가 너무 얇아 그 해체과정에서 잘 찢어지고 손상되어 새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등부분을 한 대수씩 거의 대부분을 보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배부분의 계단식 인덱스Index로 인해 여백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시련을 맞 보기도 한다.

책을 분해하고 보수한 후 프레스press에 눌러 책등에 톱질하고 꿰매기까지 열흘이 흘렀다. 책을 꿰매는 순간, 책등이 알맞게 올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책등을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책등의 높이가 책배의 높이보다 1/3~1/4정도 높아야 한다). 실의 두께, 대수의 수, 종이질, 꿰매는 방법 등. 이후 책등을 둥글게 굴리고 비단실로 세 가닥의

정교한 헤드밴드(꽃천: 제본할 때 송장의 위아래 끝에 붙이는 천)를 엮는 작업이 이어진다. 책의 머리와 꼬리 두 군데의 헤드밴드 작업은 3시간의 명상과 집중의 시간이다. 책표지에 대한 고민이 진진하게 시작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수십 겹으로 맞붙여진 수제 판지로 앞장과 뒷장의 표지가 만들어진다. 2시간 정도의 판지갈기(사포질) 후엔 사방이 파란 판지의 먼지들로 들썩인다.

가짜 등에 가죽심을 넣고 여러 시간 얇게 갈아낸 가죽으로 표지를 씌운다. 모든 이들이 가장 긴장하며 가슴조이는 순간이다. 가죽을 달래고 진정시켜 아름답게 정돈한 후 프레스에 5시간 이상 눌러놓는다. 이렇게 유럽식 고전제본이 탄생되었다.

살구색 염소가죽 마로앵maroquin이며 사그랭chagrin이라 불리는 염소가죽보다 알갱이가 크고 아름답다. 표지장식을 할 차

레다. 가죽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장식의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수사본手寫本 기도서le livre d'heures manuscrit>를 만드는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책과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을 위해 예술제본가가 되었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15세기 말, 인쇄된 기도서가 등장하게 되기까지 성가집 등 수사본 기도서가 그 자리를 메꾸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그 여백이나 밑부분을 꽃무늬 모티프로 장식을 한다. 채색가(enlumineur)는 그림을 그리고 필사 수도승(moine copiste)은 글씨를 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예술제본가는 14세기의 채색가도, 수도승도 아니지만 시간을 거슬러 채색(enluminure)을 한다. **출판**

글 · 백순덕 | 예술제본가, 렉또베르소 대표